

웰빙 열기로 각광받는 차 음료

뉴욕지사

차 음료 시장에 파란불 켜져

- 미국 차 협회(Tea Association of the USA)에 따르면 미국 차 시장은 2017년 80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2년에 100억 달러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- 이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함유 탄산음료와 주스를 멀리하는 대신 차(Tea)를 가까이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 현재 음료시장에서 차는 물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음료다. 미국인 5명중 4명이 차를 즐겨 마시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87%가 차음료를 애용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.

RTD제품의 수요증가

- 차 음료 중에서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RTD(Ready to Drink, 즉석음료) 제품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~4% 증가했으며 2017년 미국인이 소비한 차 규모는 17억 갤런(1갤런=3.78리터)을 기록했다. 미국 차 시장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역시 바로 구입해 마실 수 있는 RTD 제품을 선호하며 홍차(Black tea)

57.7%, 녹차(Green tea) 및 말차(Matcha tea) 22.5%, 허브티 19.8% 등의 순으로 소비하고 있다.

미국은 차(Tea) 수입국가 중 3위

- 2017년에 집계된 전 세계 차(Tea) 수입액은 73억 4천 9백만 달러에 달한다. 그 가운데 1위가 파키스탄(5억 4,960만 달러), 2위는 러시아(5억 2,500만 달러)이며 미국이 4억 6,800만 달러어치의 차를 수입해 3위를 차지했다.
- 국제 차 위원회(International Tea Committee)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,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잎차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중국산·일본산 녹차와 말차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며, 최근에는 인도산 모링가(Moringa)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.
- 2016~2017년 미국 차 수입액은 4억 6,271억 달러에서 4억 6,703달러로 전년대비 1% 증가했다. 미국 차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18.9%를 차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(15.8%), 인도(11.9%), 일본(9.5%), 캐나다(6.2%)가 뒤를 이었으며, 한국은 23위로 0.30%의 점유율을 보였다.

미국 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RTD 차 제품



Arizona



Pure Leaf



Brisk



Lipton



Gold Peak

미국 차 원료 수입 현황

(단위: 백만달러)

순위	국가	수입액				
		2013	2014	2015	2016	2017
	전체	453.25	445.30	446.60	462.71	467.03
1	중국	99.10	87.45	96.72	90.03	88.34
2	아르헨티나	85.82	85.10	81.87	73.71	73.99
3	인도	57.98	57.10	56.10	53.83	55.78
4	일본	33.28	30.90	37.12	44.06	51.42
5	캐나다	28.25	22.58	24.25	28.90	37.96
6	스리랑카	28.17	32.30	33.02	35.87	37.20
8	독일	26.12	23.04	21.87	16.10	14.05
12	베트남	11.46	12.50	10.09	7.65	8.55
23	한국	1.30	0.98	0.89	0.82	1.41

출처 : World Trade Atlas / HS Code 0902 기준

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RTD 차 수입제품



variety of flavors Tea



Moringa / Marcha



Kombucha



variety of flavors Tea

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수

- 웰빙 지향의 소비 트렌드 확산과 함께 2016년 미국 정부가 소다세를 도입하게 되면서 기능성 음료 및 건강 차(홍차, 말차, 콤부차, 모링가)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RTD 제품의 수요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각색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.
- 미국에서 한국 차 제품의 입지는 아직 높지 않지만, 미국 소비자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만큼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프리미엄 차 제품을 내세워 적극적 마케팅을 펼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출처 : www.teausa.com, www.foodbusinessnews.net, www.worldstopeports.com